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항상 무더운 이곳이지만, 그중에서도 일년중 가장 더운 4월과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를 더 무덥게 하는 정전과 단수가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폭우까지 내려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대지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폭우의 피해가 적지만, 아래 마을은 폭우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는 등 마을 전체가 물 난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정전으로 인한 이상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있는 선교 캠프 컴퓨터 시스템을 마음 졸이며 밤낮없이 확인 해야만 합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미리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를 다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더욱 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식사 준비로부터 화장실 문제까지 모든 것이 정지해 버린 듯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무더위와 더불어 단수, 단전, 폭우등이 한꺼번에 겹쳐서 더더욱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해변 마을 주민들의 심령에도 소생하기를 바라며, 예년과 같이 사순절 기간에 해변 마을 사람들을 교회 앞 공터로 초청하여 저녁 전도 집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또한 영화를 통하여 주님을 소개하고, 간식을 나누는 집회를 계획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계속되는 폭우와 예측할 수 없는 정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우려했던 심한 폭우가 예정한 집회 전날 밤에 해변 마을 지역에 내리고, 마을 공터가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교회 내부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예정했던 야외 전도 집회는 도저히 진행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아쉬운 마음 가운데 실외가 아닌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의 조출한 (?) 예배와 찬양과 영화 상영을 하였습니다. 이틀 후면 부활주일인데,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들 힘이 빠져 있습니다.



부활절 영화 보기

부활주일 전날 마침내 폭우가 그쳤지만, 뜨거운 더위와 함께 정전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예배후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부활절 식사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부활의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기뻐할 예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사고, 많은 시행 착오 끝에 마침내 매끈하게 달걀을 삶고, 집안을 온통 물들이며 5가지 색깔로 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 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부족한 물과 씨름하고, 비록 터진 삶은 달걀로 식사를 대신 했지만, 달걀을 받으며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절로 즐겁습니다.

부활절주일 아침 역시 정전과 함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달걀을 삶기 위하여 거의 모든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샤워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로 대신 하였습니다. 저의 물골은 말이 아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어느때 보다도 밝은 얼굴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한대로 차분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교인들과 아이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오색의 예쁜 부활절 달걀을 꺼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집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 왔던 부활절 달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달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양손에 달걀 한개씩을 움켜쥐고 기뻐서 교회 앞을 뛰어 다닙니다. 기쁜 부활절이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후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여유있게 준비한 부활절 달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 달걀을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선교지에 정착을 한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처음 이곳에 정착을 할 때 느꼈던 어려움이나 불편함등이 이제는 점점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소한 하루 하루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제 자신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당황하는 일이 점점 적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제 자신을 제가 보아도 대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방 팔방에서 들려 오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적응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날씨, 음식, 주거 환경, 언어등 새롭게 부딪힐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 했지만, 이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동네 개들도 이 소음 대열에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집집마다 종류를 알 수 없는 두 세마리의 개는 기본으로 키우고 있고, 또한 유기견들도 많아서 한 밤중에 다양한 소리로 동네를 들썩여 놓습니다. 마치 늑대처럼 울부짖는 개, 싸우는 개, 그냥 덩달아 짖는 개등 정말 다양한 소리가 들려 옵니다. 또한 새벽 단 잠을 닭 소리에 깨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닭 소리에 잠을 깬다고 하여 평화로운 전원 주택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이곳의 닭 울음 소리는 저희의 기억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의 쇠를 굵는 듯한 소리로 시끄러움 그 이상의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된 소리이지만, 온순한 이 곳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과격하게 들리는 닭 울음 소리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닭 울음 소리에 이어, 돼지들이 아침 밥을 달라는 요란한 울음 소리가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 아침 첫 비행기가 지붕 위를 지나 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누워있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아침부터 ‘소리’에 지쳐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 및 세면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물 펌프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 소음 또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합니다. 이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주 신속하게 아침 식사 준비 및 샤워를 해야만 합니다.

집 밖에는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머플러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너무도 좋아하는 이곳 사람들은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에까지 라디오를 장착하고 다니는데, 뉴욕의 부르클린 수준 이상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동네 일지라고 소위 가라오케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상상 이상의 큰 볼륨으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릅니다. 혹시 생일이나 상을 치루는 집이 있다면 새벽부터 친지와 지인들이 축하와 위로의 노래를 부르며 동네를 깨웁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 27:14)


교회나 일반 공공 장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규모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볼륨으로 인하여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중에서도 싫지 않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언어(비사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빡빡'(*) 및 템버린까지 함께 하며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란한 소리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도리어 이들의 언어로 부르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중독성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흥얼 거리게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교회에서 들었던 영감있는 찬양으로 도저히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



해변교회 찬양팀

는 교회의 찬양 담당자로부터 가사를 받아와서, 며칠 동안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현지어로 불러야 제대로 된 찬양의 맛(?)이 나는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찬양이 소란한 이곳의 삶을 이기게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빡빡 - 손뼉, 박수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5,6)**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잘 알면서도 반복해서 범하는 몇가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1. 숫자로 평가하려는 것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참석한 인원 수로 사역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나 모임 중에 참석자 수를 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나 모임 이후에 미리 준비한 물품등을 빠짐없이 나누고, 계획하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세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이유와는 달리 선교의 열매를 빨리 확인 하려고 하는 조금한 마음이 더 큼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모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도, 늘어난 숫자가 마치 제 사역의 열매인양 스스로 만족해 하는 죄 속으로 빠지곤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 33:16,17)**

2. 일반화 하려는 것

많은 현지인들과 만남의 폭이 넓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황당한 일도 또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영동하게 합리화 시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민성이니 어쩔수 없다든지, 가난해서 그렇다든지, 못배워서 그렇다든지등으로 이해를 넘어 체념을 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신 주인의 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 18:32,33)**

3. 외적인 방법을 찾는것

연필 한자루, 노트 한권이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준비를 통하여 이들을 복음의 문으로 넘게하는 귀한 계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면, 만약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만약 좀 더 좋은 시설과 준비로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선교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물질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절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에 전폭적으로 의지 하기보다는 외적인 방법을 찾기에 더욱 더 고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못한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갈 5:5)**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응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응덩이들이니라 (렘 2:13)**

8

하나님의 은혜로 약 2년 6개월만에 NY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대학 졸업식 참석과 더불어 좀더 내실있는 선교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일정: 5/16 ~ 6/18)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